

이세희 '전갈 꼬치' 먹방에...전현무·추성훈 경악 "보기 괴로워"

등록 2026.02.04 10:55:16



[서울=뉴시스] 3일 오후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혼자는 못 해'에는 전현무, 이세희, 추성훈, 이수지가 중국 상하이로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사진=JTBC 제공) 2026.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배우 이세희가 전갈 먹방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3일 오후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혼자는 못 해'에는 전현무, 이세희, 추성훈, 이수지가 중국 상하이로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네 사람은 길거리 푸드코트를 찾았다. 꼬치 전문점에서 곤충 꼬치를 발견한 이수지는 이세희에게 "너 이거 잘 먹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앞서 이세희는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벌레 잘 먹는 사람? 나 벌레 먹는다"고 자신했던 터.

이세희는 전갈 꼬치를 앞에 두고 "나 이거 먹겠다"고 했고, 전현무와 추성훈은 "전갈에 털이 나왔다"며 질색했다.

이세희는 양념을 묻힌 전갈 꼬치를 들고 망설임 없이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건 확실히 즙이 더 있다. 곤충 냄새가 난다. 진짜 맛있다"고 감탄했다.

이세희의 먹방에 이수지는 "진짜 싫다. 즙이 있다고 한다"며 경악했고, 추성훈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고 놀라워했다.

기세를 몰아 이세희는 메뚜기 먹방에도 도전했다. 이세희는 "이건 진짜 맛있다. 농담이 아니다. 바삭거리기만 해서 안에 살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평했다.

이에 전현무와 추성훈은 "우리 먹이려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러 웃음을 자아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e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